

종교개혁과 섹슈얼리티 : 부부의性に 대한 루터와 부처의 담론을 중심으로 *

朴 駿 徹 **

- | | |
|-----------------|-------------|
| I. 머리말 | IV. 부부간의 섹스 |
| II. 전통 교회의 성 윤리 | V. 맺음말 |
| III. 성직자와 성적 욕구 | |

I. 머리말

16세기 유럽 기독교 세계를 재편한 종교개혁의 전개과정에서 세인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여러 사건들 가운데는 몇몇 유력인사의 결혼문제가 있었다. 한 때 자신의 형수였던 왕비 캐서린과 18년간의 혼인생활을 매듭짓고 궁녀 앤 불린과 결합을 도모한 헨리 8세의 과감한 노선은 교황청과 군주들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서유럽 정치판도에 예사롭지 않은 위기감을 조성하였고 나아가 영국 국교회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대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한편 대륙 프로테스탄트 세력의 든든한 후견인이었던 헤센의 백작 필립(Phillip von Hessen, 1505~1567)이 감행한 중혼(重婚) 역시 커다란 파장을 가져 왔다. 어린 나이에 작센 공작 게오르크의 딸 크리스티나(Christina)를 배필로 맞이한 후 점차 그녀

* 본 연구는 2007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부교수

의 외모와 성격에 염증을 느끼게 된 필립은 크리스티나와 부부관계를 유지한 채 1540년 3월 시너 마가렛(Margaret von der Saale)과 혼인함으로써 동시에 두 아내를 두는 파격적 행보를 취하였다.¹⁾ 그 동안 중혼을 반대해왔던 개혁가들은 자신의 선택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해달라는 강력한 후원자 필립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이를 수용함으로써 개혁운동의 명분을 크게 훼손시켰으며 또한 가톨릭 진영이 퍼붓는 비난을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했다. 헨리와 필립의 결혼문제 못지않게 대대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개혁운동의 주역 루터의 결혼이었다. 1525년 6월 13일 성직자 루터는 전통의 금기를 허물고 전직 수녀 카타리나(Katarina von Bora)와 부부의 연을 맺었던 것이다. 루터의 결혼은 장구한 세월 동안 중세사회의 성 규범을 지배해 온 교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가톨릭교회와 결별하겠다는 그의 단호한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루터의 결혼은 가톨릭 보수 세력으로부터 그야말로 혹독한 비난을 초래하였다. 수도사 루터와 수녀 카타리나는 독신을 고수하겠다는 신과의 언약을 저버린 채 결혼을 통해 육체적 욕망을 채우려고 한 음란한 자들이라는 것이다. 루터가 일으킨 종교적 소요를 극도로 혐오한 작센 공작 게오르크의 하수인이었던 하센베르크(Johann Hasenberg)는 1528년 루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를 “제 정신이 아닌 가장 호색적인 배교자”²⁾로 지칭하면서 루터의 결혼을 통렬히 공박하였다. 하센베르크의 동료 요아킴(Joachim von der Heyden)은 카타리나를 수취인으로 하는 서신을 하센베르크의 편지에 동봉하였는데, 거기에 묘사된 카타리나는 “마치 춤추는 여자처럼 세속인의 옷을 입고 수녀원을 탈출하였고” 혼인식도 올리기 전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일말의 거리낌 없이 루터와 동거한 “작은 쥐새끼 하녀”였다.³⁾ 노골적 비방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다. 루터가 수녀들에게 수녀원을

1) 당시 교회법은 중혼을 허락하지 않았고, 신성로마제국의 법률에 따르면 중혼은 사형까지도 가능한 중죄였다.

2) Jeanette C. Smith, “Katarina von Bora through Five Centuries: A Historiography,”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30 (1999), p.754에서 재인용.

떠나라고 독려한 목적은 바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편이었고 실제로 그는 탈출한 세 명의 수녀를 동시에 아내로 두는 행각을 서슴지 않았다는 소문이 퍼지기까지 했다.⁴⁾ 한편 가톨릭 논객들은 루터와 카타리나의 결혼을 단순한 음행의 차원을 넘어 근친상간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수도사와 수녀는 신성한 사역을 수행하는 일종의 영적 남매이기 때문에 이들 두 사람의 성적 결합은 교회법상 명백한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개혁운동을 한사코 반대했던 토마스 모어는 “루터는 수도사들과 수녀들에게 결혼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 수도사로서 결혼생활이라는 미명 하에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한 수녀와 누워 근친상간의 색정을 공공연하게 즐기고 있다”면서 루터의 결혼에 대한 전통교회의 입장을 뚜렷이 표명하였다.⁵⁾

본 논문은 인간 삶에서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종교개혁은 과연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는가의 여부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지하듯이 종교개혁은 당대인들의 여러 사적 영역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 냈고, 특히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 부각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매우 두드러졌다.⁶⁾ 그러나 아쉽게도 결혼과 가정생활에 필수적 구성요소인 부부간의 성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인식과 담론은 오히려 학자들의 연구에서 거의 외면되어온 실정이다.⁷⁾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은 해당 주제에 다음과

3) Steven Ozment, *When Fathers Ruled: Family Life in Reformation Europe*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83), p.23에서 재인용.

4) Thomas A. Fudge, “Incest and Lust in Luther's Marriage: Theology and Morality in Reformation Polemics,”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34 (2003), p.334.

5) *Ibid.*, pp.322-323, 334-344. 인용문은 p.341.

6) 박준철, 「변화와 지속: 종교개혁이 가정과 여성에 미친 영향」 『서양사론』 65 (2000), 57-75쪽.

7) 본 논문의 각주에 포함시킨 연구들 역시 결혼이라는 큰 범주에 초점을 맞추었고 부부간의 성은 단편적이고 부차적으로 다루고 있다.

같이 접근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기존 교회가 성직자 결혼을 강력하게 성토했던 배경을 성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결부시켜 밝히고자 한다. 앞서 거론한대로 루터와 카타리나의 결합에는 온갖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다른 주요 개혁가들보다 뒤늦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⁸⁾ 가톨릭 측의 맹공이 유독 루터에게 집중된 것은 그가 개혁운동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을 고려한다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루터의 결혼에 대한 보수 세력의 규탄이 비록 대단히 원색적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결코 적대감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모함도 아니라 성에 대한 유서 깊은 전통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중세교회는 성직자의 결혼에 왜 그토록 난색을 표명했는가? 성직자 결혼 반대의 바탕에 깔려 있는 성 인식은 무엇인가? 부부의 성적 결합은 기피의 대상인가 아니면 수용의 대상인가? 그리고 그 기피와 수용의 경계선은 어디에 위치했는가? 중세교회의 성 인식을 개괄함으로써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종교개혁가들이 성직자 결혼을 한 목소리로 옹호한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성직자들에게 성을 철저히 금지한 전통적 규범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일관된 거부는 어디로부터 유래했는가의 분석이 실증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육체적 순결의 강요가 성직자들의 생활에 초래한 결과를 개혁가들은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그들이 현장에서 목격한 실상 그리고 그들 스스로 경험적으로 체득한 바는 가톨릭교회의 의도와 어떠한 차이를 보였는가? 한편 이러한 차이는 성직자의 결혼과 성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신학적 입장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되었는가? 부부의 성을 둘러싼 개혁가들의 담론이 무엇보다도 성직자 결혼이라는 보다 현실적 문제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의 질문들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음이 틀림없다.

8) August Franzen, *Zölibat und Priesterehe in der Auseinandersetzung der Reformationszeit und der katholischen Reform des 16. Jahrhunderts* (Münster, 1969), p.29에는 결혼을 감행한 수도사 출신 개혁가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4장에서는 부부의 성과 관련하여 종교개혁기에 등장한 새로운 시각을 두 명의 개혁가 루터와 부처(Martin Butzer, 1491~1551)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루터와 부처를 논의의 기제로 채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들은 둘 다 개혁가로서 압도적인 위상을 누렸고 비견할 데 없는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비텐베르크의 혁명가 루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종교개혁을 출범시킨 장본인이자 독보적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범접할 수 없는 가톨릭 교회와의 힘겨운 투쟁을 진두지휘한 개혁운동의 주인공이었다. 한편 부처는 종교개혁의 본산 비텐베르크에 조금도 손색없는 무게를 지닌 제국자치도시 슈트라스부르크의 교회지도자였다. 그는 걸출한 역량으로 슈트라스부르크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갈등을 빚고 있던 루터파와 츠빙글리파의 연합을 중재하고 또한 갈뱅과 각별한 교분을 나누는 등 대륙 프로테스탄티즘의 양대 산맥인 독일과 스위스에서 견실한 입지를 구축하였다. 둘째, 루터와 부처는 저술과 설교를 통해 부부의 성이라는 미묘한 사안을 비교적 많이 거론했기 때문이다. 루터는 이미 1520년대 초부터 성을 금기의 대상으로 규정했던 수도원제도를 신랄하게 질책하고 또한 성직자들에게 결혼을 적극 권장하는 여러 글과 비공식적 담화에서 부부의 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 왔다. 한편 부처는 16세기 종교개혁가들 가운데 결혼과 성의 문제를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룬 인물이었고, 일관되게 표출된 그의 급진적인 주장은 종교개혁이 신앙의 범주뿐만 아니라 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대단히 개혁적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셋째, 루터와 부처는 모두 한 때 수도사였고 공교롭게도 그들의 배우자들 역시 수녀출신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⁹⁾ 이들은 오랜 세월 금욕주의적 이념을 몸소 실현하다가 가정이라는 낯선 영역으로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공유한 그들에게 부부간 성적 결합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9) 부처는 루터보다 3년 앞선 1522년 여름 전직 수녀 실버아이젠 (Elizabeth Silbereisen) 과 결혼했으나 그녀가 전염병으로 사망한 1542년 슈트라스부르크의 또 다른 개혁가 카피토(Capito)의 미망인이었던 로젠블라트 (Wibrandis Rosenblatt)와 재혼하였다.

할 수 있다. 이들 두 부부는 주위의 부러움을 살만한 애정 어린 결혼생활을 영위했고 슬하의 자식 수로 따진다면 금슬이 좋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루터는 “프랑스나 베네치아와 바꾸지 않겠다”¹⁰⁾는 카타리나와의 사이에 여섯 자녀를 두었고, 부처의 첫 아내는 결혼한 지 십 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세 번의 유산을 제외하고도 무려 여덟 명의 아이를 출산하였으며 그 후 자녀의 수는 열한 명으로 늘어났다.¹¹⁾ 루터와 부처의 담론이 그저 관념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매우 역동적이고 구체적이었던 것은 부부의 성이 그들에게는 사색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었고 나아가 중요한 실존적 문제였기 때문이다.

II. 전통 교회의 성 윤리

중세 가톨릭교회의 성 관념을 명쾌하게 단언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한 위험한 일이다. 천 년의 세월동안 변화를 거듭했던 중세교회는 성에 관해서도 시기별로 미묘한 입장의 차이를 보여 왔고 일부 세부적 사안에서는 양립하기 어려운 시각들이 혼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기독교 사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뚜렷한 이념은 결혼보다 독신생활이 더 큰 영적 가치를 함유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이념은 무엇보다도 성을 부정적으로 간주한 교부들에게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교부들이 바라 본 성욕은 다름 아닌 아담과 이브가 범한 타락의 결과이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죄악이었다. 중세 성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마련한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타락 이전의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의지로써 얼마든지 욕망을 제어할 수 있었으나 그들이 신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후 육체적 충동은 의지의 통제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충족되어야 할 욕구로 변질되었다. 정욕의 포로가 된 아담과 이브는 부끄러움을 못 이겨 나뭇잎으로 벌거벗은 몸을 가

10) *Luther's Works*, 이하 *LW*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5~1986), vol. 54, p.7.

11) H. J. Selderhuis, *Marriage and Divorce in the Thought of Martin Bucer*, tr. John Vriend and Lyle D. Bierma (Kirksville, Truman State Univ. Press, 1999), p.120.

렸지만, 이미 그들의 육체에 스며든 죄악은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대상이 되었고, 이제 성욕은 그들과 그들의 후예가 지고 가야 할 영원한 운명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¹²⁾ 이와 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테제는 거의 모든 교부들에게 공유된 사상이었다. 성을 죄의 온상으로 간주한 순교자 유스티누스(Justin Martyr)는 예수의 동정잉태설을 역설하였고, 그의 제자 타티아누스(Tatianus)는 유사한 맥락에서 성교를 악마에게 봉사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오리게네스(Origenes)는 마태복음 19장 12절(“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다”)에 입각하여 자신을 거세하면서 엄격한 성윤리의 실례를 몸소 보여주었다.¹³⁾ 요컨대, 참된 기독교인은 죄악일 수밖에 없는 성을 가급적 멀리하고 육체적 순결을 유지하는 삶을 영위함으로써 신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 교부들의 공통된 신념이었고, 이러한 신념은 성에 관한 중세교회의 보편원리로 정착하게 된다.

성은 본원적으로 죄악이라는 대전제에 있어서 강한 결속력을 보인 교부들은 결혼과 부부간의 성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리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일단의 교부들은 배우자간의 성적 결합을 포함하여 모든 성행위를 총체적으로 배격하는 극단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티툴리아누스(Tertullianus)는 부부간의 성교 역시 쾌락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앙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조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자신은 아내와 몸을 섞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¹⁴⁾ 제롬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히에로니무스(Hieronymus)는 구원과 섹스는 결코 양립할 수 없으며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교도 용인될 수 없는 사악하고 불결한 행위로 간주하였다. 또한 성 그레고리우스(St. Gregory of Nyssa)는 완벽한 순

12) Vern L. Bullough, "Introduction: The Christian Inheritance," Vern L. Bullough and James Brundage ed., *Sexual Practices and The Medieval Church* (Buffalo, Prometheus Books, 1982), p.11.

13) *Ibid.*, pp.2, 6-7.

14) James Brundage, *Law, Sex, and Christian Society in Medieval Europe* (Chicago: Chicago Univ. Press, 1990), p.64.

결을 준행하는 자만이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서 반려자와의 육체적 결합마저도 따갑게 질책하였다.¹⁵⁾ 이들에게 있어서 성은 그 대상과 목적을 불문하고 구원을 향한 기독교인들의 여정을 가로막는 암초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성행위를 예외 없이 부정하는 극단적 태도는 현실사회에 수용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성은 사회와 가정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를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 요소였고, 이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주의 명령과도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사회적·종교적 당위를 도외시킬 수 없었던 상당수의 교부들은 부부간의 성행위를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인정한 육체적 결합은 자식을 낳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한되었고, 쾌락을 도모하는 성교는 여전히 더러운 음행이자 추호도 좌시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독신생활의 영적 우월성을 줄곧 강조했던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부부간 섹스의 존립이유를 오로지 자식생산에 제한시켰고, 교부들 중 결혼에 대해 가장 관대한 태도를 보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Clemens of Alexandria) 역시 상대방의 육체를 탐닉하는 섹스는 기독교인들의 생활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⁶⁾ 유사한 맥락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배우자간의 성행위를 그 목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평가하였다. 그에 따르면,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성교 특히 피임을 염두에 둔 경우는 명백한 타락을 의미하지만 자식생산이라는 타당한 목적에 이용되는 섹스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목적이 불온한 수단의 허물을 덮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후손을 얻기 위한 성적 결합도 속된 즐거움을 불가피하게 동반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고 따라서 한두 명의 자식을 얻었다면 섹스를 중단하라고 권고하였다.¹⁷⁾ 이들 교부들이 극단적 경향을 보인 다른 교부들과 달리 부부간 섹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 절대자가 창조한 인간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현

15) *Ibid.*, p.82.

16) *Ibid.*, pp.66-67.

17) *Ibid.*, pp.89-90.

실적 대명제에 대한 순응이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성은 본질적으로 죄악이라는 자신들의 신념을 좀처럼 양보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결혼보다 독신이 그리고 육체적 사랑보다 순결이 한층 월등한 가치였고 또한 추구해야 할 이상이었다. 결국 그들이 유일하게 용인한 것은 매우 제한된 목적을 가진 부부간의 결합에 지나지 않았고 거기에 담겨진 성의 모습은 분명 달갑지 않은 필요악이었다.

교부들이 그 골격을 형성시킨 전통교회의 성 관념은 기독교인들의 일상적 신앙생활에 세부적 지침을 제공했던 참회규정집(penitential)에 구체화되었다. 6세기 경 처음 등장한 후 중세에 널리 사용된 참회규정집은 가정 내에서의 성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쾌락이 배제된 성교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부부간 섹스 마저 엄격히 규제하였다. 무엇보다도 섹스가 허락되는 날이 적었다. 주일은 물론이고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관련된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수많은 종교적 축일에는 성행위 자체가 금지되었다. 경건한 마음자세를 유지해야 할 기간에 성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아내의 생리, 임신, 수유 기간에도 부부의 결합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간에 이루어지는 섹스는 그 본연의 목적인 임신과 무관하며 따라서 오로지 육체적 정염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릇된 행위라는 것이다.¹⁸⁾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응분의 참회고행을 수행해야 했다. 중세사가 제프리 리처즈(Jeffrey Richards)가 지적한대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보면, 중세의 부부들에게 허용된 평균 성교 횟수는 1주일에 한 번 꼴도 안 되었던 셈이다.”¹⁹⁾ 게다가 성교의 복장, 시간, 방법 역시 제한되었다. 부부간이라도 완전한 나체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나 혹은 신체의 구석구석이 확연히 드러나는 주간에 행해지는 성관계는 일탈된 행위로 명시되었다.²⁰⁾ 또한 후배위, 향문성교, 구강성교 등 이른 바 ‘선교사 체위’ 이외의 다른 모든 체위는 엄격히 금지되었

18) John T. Noonan, Jr., *Contraception: A History of Its Treatment by the Catholic Theologians and Canonist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65), p.163.

19) 제프리 리처즈/유희수, 조명동 옮김, 『중세의 소외집단: 섹스 · 일탈 · 저주』 (느티나무, 1999), 46쪽.

20) 같은 책, 46쪽.

다. 참회규정집의 저자들이 ‘비정상적’ 체위와 테크닉을 응징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방법들이 임신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 쾌감을 증폭시킨다는 점을 주목하였기 때문이다.²¹⁾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참회규정집은 성은 본질적으로 오염되고 불결하다는 교부들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였고 그래서 배우자간의 섹스도 교회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점을 기독교사회에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기제로 작동하였음이 틀림없다.

중세인들의 성윤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규범이 대두된 것은 11세기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한 교회법 덕분이다. 레오 9세와 그레고리우스 7세를 필두로 하는 11세기 교회개혁 세력은 세속군주의 교회간섭 배격과 교회의 대내적 기강확립이라는 이중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교회법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고, 이러한 추세는 ‘교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라티아누스(Gratianus)가 1140년경 편찬한 『교회법 대전』²²⁾으로 절정기를 구가하였으며, 그 후 더욱 정교해 진 교회법은 성을 포함한 중세인들의 다양한 사적 영역을 지배하는 준거 틀로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부부간의 성에 대한 일부 교회법학자들의 시각은 과거와 비교하여 부분적으로 완화된 양상을 띠었다. 예를 들면, 시토 수도회의 도약에 결정적 공헌을 했던 성 베르나르(Bernard de Clairvaux)는 자식생산에 국한되었던 부부간 성행위의 목적에 음란예방을 추가하였다. 성욕은 분출이 봉쇄될 경우 많은 사람들을 수음과 매춘 같은 성범죄의 유혹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차라리 배우자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해소되는 편이 덜 위험하다는 것이다.²³⁾ 한

21) Pierre J. Payer, *Sex and the Penitentals*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1984), pp.29~30; James A. Brundage, "Let Me Count the Ways: Canonists and Theologians Contemplate Coital Positions,"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10 (1984), pp.81~93; Noonan, *op. cit.*, p.163.

22) 관행상 *Decretum*으로 표기되는 『교회법 대전』의 원 제목은 *Concordia discordantium canonum*이다. 그라티아누스는 전승되어 내려오는 교황의 교서, 공의회 결정, 교부들의 견해, 로마법 등 교회의 기존 법 전통을 망라하여 382개의 항목을 집대성하고 거기에 자신의 주석을 덧붙였다. 한편 교회법학자들 가운데 *Decretum*을 연구하는 자들은 'decretists'로 불린다.

23) Brundage, *Law, Sex, and Christian Society*, p.197.

편 육체적 사랑은 자식생산과 별개로 부부의 유대감을 배가시키고 애정을 돈독케 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제기되었다.²⁴⁾ 그러나 베르나르와 많은 교회법학자들이 음란예방을 부부간 성행위의 또 다른 목적으로 거론한 것은 결코 육체적 향락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성욕의 차단에서 비롯되는 고통을 해소시켜 문란하고 일탈된 행각을 막으려는 소극적 대안 제시에 불과하며, 부부의 애정 증진도 섹스의 긍정적 역할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별다른 호응을 유발하지 못한 채 그저 웅색한 처지에 만족해야 했다. 소수의 교회법학자들이 표명한 완화된 시각의 반대편에는 유구한 세월 동안 굳림해 온 전통의 위세가 여전히 견재하였다. 그라티아누스는 육체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결혼과 섹스를 정신적 음행으로 규정하였고 오르가즘으로 이어지는 섹스는 개탄스러운 타락이므로 이를 경험한 자는 성체성사에 참여하거나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몸을 청결히 씻고 자숙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²⁵⁾ 보름스의 주교 부르카르트(Burchard)가 상대방의 성욕을 자극하는 방향제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나²⁶⁾ 13세기 초 교회법학자로 명성을 날린 후구치오(Huguccio)가 모든 육체적 결합은 쾌락을 수반하기 때문에 엄연한 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것²⁷⁾ 역시 배필 사이에서도 성행위의 목적은 육체적 쾌락과 유리되어야 한다는 전통적 이념의 발현이었다. 요컨대, 자식생산을 위한 섹스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엄습하는 쾌감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그것은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아내의 대상이었다. 게다가 절대 다수의 교회법학자들은 아내의 월경, 임신, 수유기간과 종교축일에 성교를 제한하고 또한 성행위의 '비정상적' 방법을 규제하는 참회규정집의 성 윤리를 그들의 교회법에 대거 답습하였고, 이는 부부의 섹스가 당사자들에게 자유로이 허용된 영역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시키는 것이었다. 인간 삶의 한 부분을 구

24) Jean Leclercq, *Monks on Marriage: A Twelfth-Century View* (New York, 1982), pp.7, 25-28, 69-70.

25) Brundage, *Law, Sex, and Christian Society*, pp.240-246.

26) *Ibid.*, p.199.

27) *Ibid.*, p.281; Ozment, *op.cit.*, p.10.

성하고 있는 성에 대해 중세 교회는 즐김 곱지 않은 시선을 유지하였고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미온적으로 용인된 부부간의 섹스는 일종의 '금욕적 섹스'였던 셈이다.

전통교회가 성을 완강히 배격하고 그래서 부부간 육체적 결합의 수용에 있어서도 인색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성직자 결혼에 대한 교회의 강경한 태도와 정책에서 여실히 예증된다. 교회 당국이 성직자 결혼금지를 공식적 차원에서 결정된 최초의 선례는 4세기 초에 개최된 엘비라(Elvira) 공의회였다. 교리와 조직에 있어서 가톨릭교회의 정체성이 제법 구색을 갖추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인 성직자들에게는 보다 엄격한 규범이 요구되기 시작했고, 특히 성직자는 온갖 죄의 온상인 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엘비라 공의회 의제와 결의 내용은 거의 절반이 섹슈얼리티에 집중되었고, 성직자들에게는 강력한 처방이 내려졌다. 성직자들은 아내와 이혼해야 했고 자신들의 거처에 더 이상 하녀를 고용할 수 없었으며 동일한 성범죄에 있어서도 평신도들 보다 더욱 준엄한 응징을 감당해야 했다.²⁸⁾ 엘비라 공의회의 결정과 그 후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들의 결혼 혹은 동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게 되자, 교회 당국은 11~12세기 들어와 보다 전격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1세기의 개혁교황들은 성직자 결혼을 근절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1123년과 1139년에 개최된 두 차례의 라테란(Lateran) 공의회에서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종전까지 성직자의 결혼은 교회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력은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제 성직자의 결혼은 교회법상 명백한 범죄로 규정되었고, 이를 위반하여 결혼을 감행했을 경우 그 결혼은 원천적 무효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성직자의 아내와 자식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동거녀와 사생아로 전락하였다. 또한 이미 혼인상태에 있는 성직자는 아내와 결별하거나 아니면 성직을 반납해야 했다.²⁹⁾ 12세기부터 교회 수뇌

28) Samuel Laeuchli, *Power and Sexuality: The Emergence of Canon Law at the Synod of Elvira* (Philadelphia, 1972), p.94.

부는 성직자의 육체적 순결에 대해 일말의 타협조차 거부하였고 나아가 결혼은 교회의 엘리트들에게 걸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을 거듭 천명하면서 성은 그 자체로 최악이며 부부간의 육체적 사랑도 그다지 탐탁치 못한 행위라는 전통적 성관념을 온 세상에 주시시켰다. 성직자들이 여성과 가정을 꾸미고 성애를 나누는 것은 종교개혁이 도래할 무렵에도 생소한 광경은 아니었으나, 항간의 빈축과 교회의 단호한 대응은 그들이 감수해야 할 몫이었다. 성직자 루터의 경우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III. 성직자와 성적 욕구

종교개혁이 부부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각시키게 된 일차적 계기는 바로 성직자 결혼문제였다. 개혁가들은 성직자 결혼의 당위성을 일제히 주장하였고 또한 자신들의 주장을 행동으로 옮겼다. 오랜 세월 동안 건드릴 수 없었던 성역에 개혁가들이 시비를 걸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성직자로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목격하던 독신생활의 일그러진 모습 때문이었다. 그들에 따르면, 육체적 순결의 강요는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혼탁의 나락에 빠뜨리는 온당치 못한 규범이었다. 지인들과 함께한 한 식탁대화에서 루터는 많은 수도사들이 종종 타오르는 성욕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몽정을 하여 그 다음날 양심의 가책 때문에 미사를 집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고 밝힌다. 여기서 루터가 개탄하는 것은 금욕적 계율을 준수하지 못한 수도사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순결을 강요하는 수도원 제도였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는 음란한 타락을 조장하는 모든 수도원과 수녀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⁰⁾ 자기 자신 역시 수도사 시절 엄습하는 성욕 때문에 여러 번 밤잠을 설치고 가끔 몽정을 경험³¹⁾했다고

29) Brundage, *Law, Sex, and Christian Society*, p.220.

30) Susan C. Karant-Nunn and Mery E. Wiesner-Hanks, ed. and tr., *Luther on Women: A Sourcebook*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3), p.235.

31) Martin Brecht, *Martin Luther: His Road to Reformation, 1483-1521*, tr. James Schaaf

고백했던 루터에게 이러한 판단은 신학적 논리에 앞서 현장에서 체득된 깨달음이었다. 그는 한 설교에서 다른 일화들을 생생하게 소개하면서 강요된 순결의 폐해를 거듭 확인시킨다.

[성직자 결혼 금지령을 내린 직후 교황(그레고리우스 7세)은 한 수녀원 오른쪽에 위치 한 깊은 연못에서 낚시를 하려고 했다. 연못에서 물을 빼내자 어린아이 육천 명의 두개골 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연못에 던져져 익사한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이 바로 독신생활이 가져온 결과다. [중략] 최근 오스트리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노이부르크 (Neuburg)에 있는 한 수녀원에는 불경스럽고 타락한 수녀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녀들을 내쫓으려 하였다. 그녀들이 다른 장소에 보내지고 난 후 프란체스코회 수도사들이 이곳을 차지했다. 수도원을 확장하기 위해 땅을 파헤치던 수도사들은 12개의 단지를 발견하였다. 각 단지마다 아이의 시체가 담겨 있었다.³²⁾

요컨대 독신생활은 성직자들을 성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소되지 못한 성욕에 예속시켜 몸과 마음을 더럽히고 심지어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것이 루터의 진단이었다.

슈트라스부르크의 개혁가 부처 또한 루터와 맥을 같이 하였다. 1522년 수도사의 금기를 깨고 배필을 맞은 부처는 곧 관할주교의 엄중한 추궁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는 슈트라스부르크 의회에서 낭독된 『해명』(Verantwortung)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의 정당성을 주저 없이 피력하였다. 그는 고통 없이 육체적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천명 가운데 한명도 안 되며 자신과 아내는 수도사와 수녀로서는 결코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경험적으로 깨달게 되었다면서 기존 규범의 가혹성과 비현실성을 지적하였다³³⁾ 한편 1525년 초에 이르러 제국정부가 그동안 혼인한 성직자들을 비호해왔던 슈트라스부르크 의회에 압력을 가하게 되자 부처는 독신강요로 빚어진 성직자들의 문란한 생활을 다음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5), p.67.

32) *Luther on Women*, p.169.

33) Selderhuis, *op. cit.*, pp.60-62.

과 같이 적나라하게 밝히면서 제국정부에 저돌적으로 응수하였다.

사제가 노련한 매춘부와 지낸다면 도대체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영혼을 돌보아야 하는 사제가 허락되지 않은 동거녀를 갖고 동시에 몇몇 매춘부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제가 죽은 친구로부터 정부(情婦)를 물려받지 않습니까? 사제가 신실한 시민가정의 아가씨를 꼬드기고, 팔아먹고, 또한 자신의 쾌락을 위해 그녀와 살림을 차리는 것을 보고 신자들이 경악하지 않습니까? 사제가 어린 소녀에게 추근거리지 않습니까? 사제가 자신의 아내를 갖는 대신 경건한 사람들의 아내들을 은밀히 유혹하지 않습니까? [중략]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성스러운 규범을 따르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까?³⁴⁾

뿐만 아니라 부처는 육체적 순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계율이 성직자의 방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도처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폐단임을 알고 있었다. 개혁운동을 일선에서 이끌면서 지역교구의 실상을 꿰뚫고 있었던 그는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당시 상황을 묘사한다. “아직 개혁운동을 수용하지 않은 대부분의 마을에 가보라. 그 마을에서 가장 제멋대로이고 가장 호색적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모든 정직한 사람들은 사제를 지목할 것이다.” 개혁의 현장에서 목격한 실태에 입각한 이와 같은 확신은 부처에게 과장된 결론을 내리게 한다. “결혼의 금지는 세상을 온갖 종류의 음란으로 가득 채웠고 기독교 세계의 적어도 삼분의 일은 불행하게도 매춘부와 불한당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⁵⁾

강요된 독신이 성직자를 타락시킨다는 진단은 루터와 부처의 몫만은 아니었다. 프란체스코회 수도사였다가 개혁의 대열에 합류한 에벌린(Eberlin von Günzburg)은 자신이 제작한 팜플렛에서 한 익명의 성직자를 소개한다. 한 유부녀와 바람이 났던 그는 성직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곧 육체적 욕망을 못 이겨 한 여성과 동거를 하게 되었고 그녀에게 피임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그는 계속되는 자책감으로 동거녀와 결별하였지만 또 다른 여성과

34) *Ibid.*, p.69에서 재인용.

35) 인용문들은 각각 *Ibid.*, p.333과 332에서 재인용.

동거에 착수하였고 그녀와의 사이에 열일곱의 아이를 두게 되었다. 규범과 현실의 틈바구니에서 고뇌하던 이 성직자는 자신의 참담한 심경을 이렇게 토로한다.

나는 괴롭다. 나는 한편으로는 아내 없이 살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가 허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다 아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내 영혼과 명예는 더럽혀졌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집전하는 성사를 거부하면서] 나를 저주한다. 내 정부가 교회에 나가고 길거리를 나다니며 내가 낳은 사생아들이 내 눈앞에 앉아 있는 데 내가 어떻게 순결에 대하여 그리고 음란과 간통과 부정한 행동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겠는가?³⁶⁾

역시 프란체스코회 수도사에서 개혁운동으로 선회했던 하인리히(Heinrich von Kittenbach)는 고해성사에서 종종 벌어지는 불상사를 꼬집었다. 고해신부들이 남편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임신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마치 암소 무리에 있는 황소처럼” 많은 여성을 상대할 수 있는 자도 있다는 것이다.³⁷⁾ 한편 영국의 개혁가 반스(Robert Barnes)가 들려주는 한 공증인의 일화는 성직자 독신 규정이 야기한 폐해의 규모를 가히 짐작케 한다. 반스의 회상에 따르면, 이 공증인은 성직자의 자식들을 서품시켜달라는 탄원서를 무려 천 건이나 작성하였으며 또한 당시 영국 성직자 가운데 독신의 의무를 지키는 자는 삼분의 일에도 못 미친다고 추정하였던 것이다.³⁸⁾ 개혁가들이 일선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이러한 사례들은 결국 독신생활을 그토록 총애했던 전통 교회의 의도를 뒤집는 것이었다. 육체적 순결은 고결한 생활을 낳고 따라서 영적 엘리트인 성직자들은 성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야 한다는 뿌리 깊은 이념은 16세기 교회개혁가들에게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낡은 이념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독신강요라는 문제의 본질과 사태의 심각성을 속속들이 간파한 개혁가들이

36) Ozment, *op.cit.*, pp.5-6. 재인용문은 p.6.

37) *Ibid.*, p.6.

38) John E. Yost, “The Reformation Defense of Clerical Marriage in the Reigns of Henry VIII and Edward VI,” *Church History*, vol. 50 (1981), p.157.

성직자 결혼을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성직자에게 순결을 강제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생리적 억압이고 따라서 성직자의 성욕도 결혼이라는 적법한 제도를 통해 정당하게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혁가들이 초지일관 고수한 입장이며, 이 점에서 종교개혁은 일종의 혁명으로서 그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물론 중세교회 역시 성욕은 성직자에게도 수시로 찾아오는 강력한 유혹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캔터베리 대주교 성 안셀무스(Anselmus)는 노년에 이르러 자신을 평생 동안 괴롭혀 온 성충동과 그 파괴력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슬프고 가엾게도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괴롭히면서 나를 늘 따라다니는 악 중의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요람에서부터 함께 하더니, 유년기며 사춘기며 청년기에도 나와 함께 자라면서 항상 나에게 달라붙어 있으며, 내가 늙어 사지가 쇠약해 있는 지금에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악이란 늙은 성욕이며 육체적 쾌락이며 육욕의 폭풍을 말합니다. 이놈은 내 불행한 영혼을 뭉개고 난타하여 모든 기력을 앗아가니,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은 허약함과 공허함뿐입니다.³⁹⁾

성 베르나르 또한 자신의 수도사들에게 유사한 메시지를 담은 경고를 하였다. “한 여성과 늘 함께 있으면서 그녀와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어렵다”⁴⁰⁾는 것이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성욕이 성직자들로서도 극복하기 버거운 상대임을 인정하면서도 성직자는 그것을 억제하고 감내해야 한다는 지엄한 계율을 변함없이 수호하였던 것이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사전에 성충동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멀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성과 함께 거처하거나 대화를 나누지 말라는 권고는 성직자들에게 늘 익숙한 가르침이었다. 13세기 초 도미니크회의 규정은 심지어 수도사들에게 고해성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여성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주문을 내렸다.⁴¹⁾ 제어된 성욕에서 비롯되는 심신

39) 제프리 리처즈, 앞의 책, 38쪽에서 재인용.

40) Caroline W. Bynum, *Jesus as Mother: Studies in the Spirituality of the High Middle Ages*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2), p.145에서 재인용.

의 고통은 결국 중세의 성직자들이 속절없이 감수해야만 하는 삶의 무게였던 것이다.

개혁가들은 성직자들의 성욕과 관련하여 중세교회와 동일한 진단을 내린 셈이지만 그들의 처방은 전혀 달랐다. 루터는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교회는 성직자들에게 “유혹과 죄악을 피할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독신에 예속시키지 않았으므로, 교황은 물론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포함해 그 누구도 그들을 독신에 묶어둘 수 없다.” “인간의 연약함은 순결한 삶을 허락지 않으며” 따라서 성직자의 결혼은 “교황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허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²⁾ 또한 루터는 결혼을 망설이던 그의 동료 라이센부쉬(Wolfgang Reissenbusch)에게 보내는 서한(1525년 3월 27일자)에서 명쾌하게 자신의 소신을 전한다. “고민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하십시오. 당신의 육체가 결혼을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결혼을 원하시며 축구하십니다.” 루터의 편지는 유효했고 라이센부쉬는 한 달 후 독신생활을 마감하였다.⁴³⁾ 성적 본능이 자신의 결혼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완곡히 표현했던 부처 역시 루터와 동일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독처(獨處)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한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성욕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욕구가 인생의 반력자를 통해서 충족되지 않으면 죄악이 만연한다는 것이다. 남녀의 결합을 하늘이 부여한 소명의 이행으로 확신한 부처에게 성직자의 결혼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녕 “악마의 교리이고, 적그리스도의 작품”이었다.⁴⁴⁾ 한편 수도사 생활을 접고 1522년 초 결혼한 후 개혁의 본고장인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대학장을 역임했던 요나스(Justus Jonas; 1493~1555)는 자신의 경험을 되살려 성직자 결혼의 당위성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41) Brundage, *Law, Sex, and Christian Society*, p.401.

42) “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LW*; vol. 44, pp.176-177.

43) Fudge, *op. cit.*, p.330.

44) Selderhuis, *op. cit.*, p.171.

한 남자가 여자 없이 사는 것은 성(性)을 전환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남자가 서로를 원하는 것은 타고난 갈망이자 본능적 애정이며 그것을 통제하는 일은 우리의 역량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⁴⁵⁾

많은 개혁가들이 성직자 결혼을 촉구한 것은 성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주변에서 목격한 실상과 그들이 남긴 자화상을 미루어 볼 때 섹슈얼리티는 성직자들이 가정을 꾸미고 배우자를 맞게 된 으뜸가는 요인이었다. 성직자에게도 성은 결코 외면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절실히 깨우쳤고 그래서 사력을 다해 기존교회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획기적 구원론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종교적 패러다임을 유럽사회에 정립한 종교개혁은 성직자에게 성은 더 이상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는 이념과 규범을 안착시키면서 그들의 일상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전통의 위세 앞에서 신음했던 많은 성직자들에게 종교개혁은 분명 하나의 낭보였다.

IV. 부부간의 섹스

장구한 세월동안 교회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성직자 결혼을 촉구하고 수용했던 개혁가들은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부부간의 섹스에 대해서도 새로운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그들의 담론에서 섹슈얼리티의 명암이 완전히 뒤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성은 본질적으로 불결하고 그래서 항상 배격되어야 할 죄악이라는 종전의 시각은 현격하게 완화되었고, 특히 부부간 육체적 결합의 의미는 괄목할 만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 사안에 있어서도 루터와 부처는 훌륭한 단서를 제공한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이신칭의론(以信稱義論)을 자신의 성 담론에도 적용시켰다.⁴⁶⁾ 루터에 따르면, 신은 태생적으

45) Steven E. Ozment, *The Age of Reform 1250-1550: An Intellectual and Religious History of the Late Medieval and Reformation Europe* (New Haven, Yale Univ. Press, 1981), p.391에서 재인용.

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오히려 의로운 존재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타락에서 잉태되어 인간의 불순한 본능으로 귀착되어 버린 성욕의 허물을 더 이상 묻지 않고 그것을 눈감아 준다. “왜냐하면 결혼생활은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⁴⁷⁾이라는 것이다. 즉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섹스는 신의 은총에 힘입어 죄악의 멍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루터는 남녀의 육체적 결합을 단순히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신의 지엄한 명령으로 부각시키면서 섹슈얼리티에 대해 한층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평가를 내린다.

남자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내 능력 밖의 일인 것처럼 나는 여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의 능력 밖의 일인 것처럼 당신들은 남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남자든지 여자를 취해야 하고 어떤 여자든지 남자를 취해야 함은 자유로운 선택이나 결정사항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훼방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중략] 육체적 결합은 잠자고 걷고, 먹고 마시고, 용변을 보는 것보다 더욱 필요한 일입니다.⁴⁸⁾

루터는 성욕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 견해를 강화하기 위해 당대 의학자들의 의견을 차용한다. 억압된 성욕은 “필연코 혈(血)과 육(肉)에 해를 끼치는 독으로 변하며 그로 인해 신체는 허약해지고, 기운이 떨어지며, 땀을 흘리게 되고, 역한 냄새를 풍긴다.” “분출되어야 할 성욕”이 몸 안에 남아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질병으로 이어진다. 임신을 못하는 여성이 병약한 반면 “자식을 많이 낳은 자가 건강하고, 청결하며, 행복한” 이유는 성욕의 발산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⁹⁾ 결국 루터가 인식한 섹슈얼리티는 부득이하게 용인할 수밖에 없는 필요악이 아니라 신과 사회와 개인을 위해 마땅히 존립해야 하고 흔쾌히 수

46) *Luther on Women*, pp.11, 152~153.

47) “The Estate of Marriage,” *LW*, vol. 45, p.49.

48) *Ibid.*, p.18.

49) *Ibid.*, pp.45~46.

용되어야 할 당위였으며, 이는 성을 줄곧 기피와 인내의 대상으로 고집해 온 중세교회의 이념을 무색케 하는 것이었다.

루터의 성 담론과 기존 전통 사이의 간극은 부부간 섹스의 문제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는 부부간 섹스의 일차적 목적이 자식생산에 있다는 점은 결코 부인하지 않았으며, 이점에서는 과거의 관점을 승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루터는 부부간 섹스의 목적을 단순히 자식생산에 국한시키지 않았다. 배우자와의 섹스에 따르는 육체적 즐거움은 비난거리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서로의 친밀감을 진작시키고 애정을 향상시키며 따라서 가정생활에 윤택유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⁵⁰⁾ 성에는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것이므로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향유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 루터의 소신이었다. 더구나 성욕의 충족은 결혼의 존재이유였고 또한 신의 뜻과 자연의 섭리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는 1530년대 초 한 설교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힌다.

일부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생활에서 서로의 육체를 원하는 것이 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세세한 논쟁을 벌여 왔다. 이는 어리석은 짓이고 또한 성경과 순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상대방에 대한 욕망과 애정을 품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결혼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신랑과 신부에게 그러한 욕망을 주셨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모두 결혼을 회피할 것이다.⁵¹⁾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 결합의 의미를 새롭게 평가하고 그 효용성을 폭 넓게 인정한 루터는 세부적 사안에 있어서도 중세교회의 전통에 등등한 기세로 맞선다. 그가 우선적으로 못마땅하게 여긴 대상은 부부의 섹스를 종교축일 그리고 아내의 생리와 임신 등의 기간에 규제하는 “일부 쓰레기 같은 설교가들”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그릇된 규범으로 기혼자들을 “음란의 위협에 노출시켰고,” 이는 “우리에게 구역질을 일으키는” 심각한 우를 범하는 것이며,

50) *Luther on Women*, p.137; Fudge, *op.cit.*, p.326.

51) *D. Martin Luthers Werke* (Weimar, 1883-1993), vol. 32, p.373.

따라서 남편들은 “종교축일과 [아내의] 신체 상태에 껴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⁵²⁾ 부부간이라도 섹스를 가급적 제한시켰던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루터의 강경한 태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1545년 8월 이미 육수를 넘긴 루터는 한 혼인식 설교에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누워 성교를 나누는 가정에 찾아오시더라도 그들은 놀라거나 두려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제정하신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³⁾ 또한 “매주 두 번, 일 년에 백 네 번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해가 될 것이 없다”⁵⁴⁾라는 루터의 판단은 부부의 육체적 결합마저도 꺼려했던 기존 전통을 단연 궁지로 몰아넣는다. 한편 루터는 부부간 섹슈얼리티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훗날 학자들을 당혹케 하는 극단적 언급마저 서슴지 않았다. 아내가 지속적으로 섹스를 거부한다면 남편은 다음과 같이 충고하라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여자가 있어. 그래도 싫다면 하녀를 부르겠어.”⁵⁵⁾ 요컨대 루터에게서 성은 반감지 않은 인간의 굴레가 결코 아니었다. 또한 오랜 세월 중세교회의 충애를 한 몸에 받아 온 ‘금욕적 섹스’도 더 이상 능사가 아니었다. 인생의 동반자와 육체적 사랑을 나누는 일은 오히려 하늘의 축복이자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라는 것이 남편 루터가 터득하고 공유하려 했던 명제였다.

슈트라스부르크의 지도자 부처는 개혁세력 내부에서 침묵하게 전개된 교리는 쟁에서 대단히 탄력적인 태도를 보인 인물이었다. 그가 때로는 정체성에 대한 의혹을 사면서도 루터, 츠빙글리, 칼뱅 같이 타협을 모르는 전사들과 두루 교분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학적 유연성과 온건함 덕분이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부처는 부부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는 루터를 능가하는 급진성과 일관

52) “The Estate of Marriage,” pp.35-36.

53) *Luther on Women*, pp.98-99.

54) William Lazareth, *Luther on the Christian Home* (New York, 1960), p.266에서 재인용.

55) “The Estate of Marriage,” p.33.

성을 보였다. 그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불문하고 16세기 지식인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부부의 성을 옹호하였던 것은 바로 그의 남다른 결혼관 때문이었다. 부처의 결혼관의 핵심은 다름 아닌 배우자간의 애정과 정서적 교감이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부처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이미 롬바르두스(Petrus Lombardus)를 비롯한 12~13세기의 일부 교회법학자들은 결혼의 성립조건을 당사자들의 상호동의로 규정하면서 남녀결합의 감정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들의 논점이 결혼의 성립단계에 국한되었던 반면 부처는 결혼생활의 성립뿐만 아니라 유지에 있어서도 부부의 애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입장을 내내 견지하였다. 이러한 부처의 관점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주장으로 이어진다. 결혼의 일차적 목적은 자식생산이 아니라 반려자에 대한 배려와 봉사를 통해 서로가 사랑의 동일체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며, 이점에서 그는 기존교회의 대변자들은 물론 루터와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⁵⁶⁾

그렇다면 부처가 부부의 육체적 결합에 대해서도 급진적 견해를 제시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결혼의 으뜸가는 준립명분이 부부간의 애정 증진인 것과 마찬가지로 섹스 역시 동일한 목적을 우선적으로 겨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에 나타난 그의 목소리를 들어 보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배우자들이 상대방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그가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교를 통해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성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교를 한 후 아이를 갖지 못한 경우에도 부부의 [성적] 관계는... 사랑과 화목과 봉사가 실천되고 고양되고 증진되는 이익을 가져옵니다.⁵⁷⁾

부처는 또 다른 방향에서 실마리를 풀어간다. 그에 따르면, 성교의 목적을 단지 자식생산에 제한시키는 것은 결국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에게 섹스는 어

56) Selderhuis, *op. cit.*, pp.172~173.

57) *Ibid.*, p.176에서 재인용.

리석은 행위거나 불필요하다는 논리로 귀착되며, 이는 신의 의도에 저촉되는 가르침이자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신은 모든 인간에게 성욕을 허락하였고 따라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섹스 없이는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부부가 많다는 것이다.⁵⁸⁾

결혼생활의 중심이 애정에 있고 따라서 육체적 결합은 애정을 배가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한 부처는 부부간 섹스를 적극 권장하게 된다. 부처에게 있어 지나친 금욕은 그 의도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배우자에 대한 봉사의 의무를 저버리는 배반행위였다. 반면 “풍성한 육체적 결합”은 결혼성립의 조건이었고,⁵⁹⁾ 섹스가 결합된 결혼은 진정한 결혼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부처는 성교의 회피나 성적 능력의 결핍을 부부의 결별사유에 대거 포함시키면서 “이혼에 있어서 가장 개방적인 16세기 프로테스탄트⁶⁰⁾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였다. 그는 섹스 거부는 곧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봉사를 외면하는 것이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혼사유라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배우자의 섹스 기피 때문에 혼외정사를 범한 경우에도 비난의 화살은 간통 당사자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사태의 씨앗을 뿌린 상대 배우자에게 가해져야 한다는 이례적 의견을 표명하였다.⁶¹⁾ 나병과 정신질환 그리고 발기부전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되었다.⁶²⁾ 특히 부처가 결혼생활 도중에 생긴 발기부전(*impotentia superveniens*)을 이혼사유로 규정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주지하듯이, 그라티아누스와 그를 추종하는 볼로냐 학파는 성적 결합을 결혼이 법적으로 승인되는 일차적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기존교회 또한 동일한 관점에서 결혼 전부터 앓아 온 발기부전(*impotentia antecedens*)을 혼인무효의 사유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58) *Ibid.*, pp.176-177.

59) *De Regno Christi*, in Wilhelm Pauck, ed., *Bucer and Melancthon* (Philadelphia, 1969), p.325.

60) Ozment, *When Fathers Ruled*, p.84.

61) *De Regno Christi*, p.331; Selderhuis, *op.cit.*, pp.288-289.

62) Selderhuis, *op.cit.*, pp.294-295.

들은 남녀결합의 시작단계에서의 성적 능력을 고려한 것에 불과했으며, 섹스가 한번이라도 이루어진 후에 발생한 발기부전은 결별의 이유가 될 수 없었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섹스가 결혼생활 내내 부부관계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부처의 입장을 거듭 확인시키는 것이다. 심지어 부처는 아내가 출산의 후유증으로 더 이상 섹스를 할 수 없을 경우에도 다른 여성과 재혼이 허락되어야 한다는 극단적 견해마저 주저하지 않았다.⁶³⁾ 요컨대, 의도적이건 불가항력적이건 상호간 애정증진에 열쇠를 쥐고 있는 섹스를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에 봉착한 부부들은 차라리 과정을 선택하고 새로운 동반자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 부처의 소신이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부부의 성에 대한 루터와 부처의 담론은 꽤나 혁신적이었다. 그들은 성의 규제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성적 문란을 낳는다는 현실의 교훈을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성욕은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자연적 본능이자 부부의 애정과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얼마든지 선용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들의 담론 속에는 성을 본원적으로 죄악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부부의 육체적 결합마저 못마땅하게 바라보았던 전통교회의 성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독점적 위상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예고되어 있었다. 개혁의 열풍은 구원이라는 화두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의 영역에도 강하게 불어 닦았던 것이다.

V. 맺음말

20세기 중반 불세출의 명성을 누리며 종교개혁 사학사에 큰 획을 그었던 베인톤(Roland Bainton)은 “인간 생활에서 종교개혁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유일한 영역은 가정⁶⁴⁾”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중세교회가 근사한 미덕으로 예찬했던

63) *Ibid.*, p.300.

64) Roland H. Bainton, *Here I Stand: A Life of Martin Luther* (Nashville, Abingdon

독신생활이 종교개혁을 통해 음지로 내몰린 반면 가정은 신앙과 인격수양의 요람으로 부상하면서 서양사회에 가장 중심의 문화가 정착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평가이며, 이는 많은 학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어 왔다. 본 논문이 천착한 섹슈얼리티의 경우에도 베인톤의 평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에덴이라는 공동체가 형성된 태초의 순간부터 성욕은 곧 인간의 타락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통교회가 견지해 온 이념이었다. 성은 그 자체로 죄악이었고 그래서 영원한 시온을 향한 기독교인들의 순례에 항상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 부부의 육체적 결합은 허용되었지만, 그것은 분명 제한된 허용이었고 또한 내키지 않은 허용이었다. 성직자에게 독신을 강요해 온 중세의 전통 속에서도 이는 여실히 예증되었다. 그러나 지엄한 순결의 규범은 오히려 육체적 방종으로 이어지는 자충수라는 것을 일상의 현장에서 깨우친 개혁가들은 이제 성직자에게도 성은 개방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입각하여 도발적 거사를 결행하였고 그 여세를 몰아 섹슈얼리티에 대해 혁신적 담론을 전개하였다. 신은 태생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허물을 묻지 않는 것처럼 성욕을 더 이상 탓하지 않으며, 부부의 육체적 결합은 당사자들의 관계를 윤택하게 하고 나아가 신의 뜻에 부합하는 이상적 가정건설에 매우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다. 섹스는 무언가 꺼림칙하다는 인식은 오늘날까지도 서양인들의 성 관념 속에 도도히 잔류하고 있다. 그러나 중세교회의 추상같은 성 이데올로기는 근대를 거치면서 예전의 광영을 점차 잃어갔고, 그 영향력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에 종교개혁이 한 몫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혁가들이 제시한 새로운 성 관념은 당대인들의 실생활에 어떻게 구현되었을까? 어려운 질문이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섹슈얼리티는 가장 은밀한 영역이었고, 세월의 건너편에서 있는 당대인들의 숨결과 체취는 간파할 재간도 없었으며, 사료는 늘 간접적이고 불만족스럽다. 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1546년 초 루터가 카타리나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에는 이들

부부의 성적 친밀도를 가히 짐작케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월 1일자 편지에서 루터는 잦은 외유로 건강이 악화된 남편을 걱정하는 카타리나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제는 건강이 좋아졌으니 주님께 감사합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름다운 여자들이 나를 유혹할 수 없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나는 타락할 걱정을 하지 않아요.”⁶⁵⁾ 임포텐스를 알리는 것이었다. 2월 7일자 편지에서 루터는 성적으로 무력해진 자신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될 카타리나를 애써 달랜다. “내가 능력만 된다면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소. 이것으로 위안을 삼으시오.”⁶⁶⁾ 당시 루터의 나이는 63세였고 며칠 후 그는 세상을 하직했다. 임종을 앞둔 노인 루터가 쓴 이 편지들은 그와 카타리나의 이십년 결혼생활에서 섹스는 일상적인 것이었고 매우 중요한 애정의 연결고리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담론이 생활로 이어진 셈이며, 개혁의 진가가 제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주제어 : 성 (Sexuality), 교부 (Church Fathers), 교회법 (Canon Law), 성직자 결혼 (Clerical Marriage), 부부의 육체적 결합 (Marital Intercourse)

투고일(2008. 1. 3), 심사시작일(2008. 1. 5), 심사종료일(2008. 1. 28)

65) “To Mrs. Martin Luther, February 1, 1546,” *LW*, vol. 50, p.291, note 10. Cf. *Luther on Women*, p.193.

66) “To Mrs. Martin Luther, February 7, 1546,” *Ibid.*, pp.303-304.

〈Abstract〉

The Reformation and Sexuality: Luther and Bucer on Marital Intercourse

Park, Joon-Chul

Many scholars have long dealt with the impact of the Reformation on marriage and home. Sexuality, an essential part of marital life, however, has received little scholarly attention.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the reform movement of the sixteenth century influenced sexuality in general and the meaning of marital intercourse. In particular, both the medieval tradition on sexuality established by the church and the argument of two leading reformers, Luther and Bucer, will be analyzed in detail.

The basic view on sex and sexual desire held throughout the Middle Ages was founded by the Fathers who regarded sex as impure and sinful. According to them, sexual desire derived originally from the Fall of Adam and Eve and then became uncontrollable human nature. Sex in itself is a filthy sin and true Christians, therefore, should refrain from sexual relations in order to obtain salvation. Penitentials, used widely in the Middle Ages to regulate sexual behavior, inherited the rigorous sexual ethics established by the Fathers and required married couples to restrict their intercourse to a minimum. Clerical marriage was also prohibited on the ground that the spiritual elite should avoid the sexual activities. The medieval church always showed negative attitude towards sex and sexual desire.

Contrary to the medieval tradition, the reformers advocated abolition of clerical celibacy. They characterized Catholic insistence on celibacy as tyrannical, arbitrary, and wanton. Through their own experience and the ill effects of forced celibacy they witnessed, the reformers maintained that the

clergy ought to be free to marry. Celibacy was, according to them, not a divine commandment and certainly not necessary for salvation, and forced celibacy led many clerics to sexual impurity. Sexual desire were inborn and inescapable part of being human, so even the clergy should be allowed to release it through marriage.

The reformers went so far as to argue that sex was not sinful because God ordained marriage. Not only was it not shameful to feel sexual desire, but there was no intrinsic wrong in satisfying it. Luther thought that the purpose of sexual intercourse should not be limited to procreation. It was also very useful to promote the affection and intimacy of the married couples. The Strasbourg reformer Bucer even claimed that the primary purpose of sex was to render service to the partner. He thus included the lack of sexual ability in the grounds for divorce because marital life without sexual intercourse was not a true one. The ideas of Luther and Bucer clearly proved that the revolutionary nature of the Reformation extended to the realm of sexuality.